

해남에 야구장·축구장... 대규모 '스포츠파크' 들어선다



2025년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대형 스포츠단지인 '해남스포츠파크'가 완공된다. 현재 해남에서 한 곳 뿐인 북평면 소재 야구장에서 동호인들이 야구경기를 하는 모습. <해남군 제공>

전남 시·군 지자체 스포츠관광 메카로



해남 스포츠파크 조감도

<상> 전지훈련의 요람

KIA 타이거즈가 'V12'를 달성한 올해 프로야구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전국 각지의 야구장을 도는 '원정 응원문화'도 자리잡았고, 각 팀의 전지훈련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해외 원정에 동참하는 열성팬도 늘고 있다.

특히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와 해남·완도 등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스포츠 단지가 전남지역에 잇따라 들어설 전망이다. 이 광주-전남이 본격적인 '프로야구 마케팅'에 나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규연 KBO 총재도 프로야구 구단의 마무리 캠프 지역으로 일본 등 해외가 아닌 전남 중심 '남해안 벨트'를 눈여겨 보고 있고 전국 초·중·고 대학 야구단의 전지훈련까지 더해지면 광주와 전남이 스포츠 산업 메카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일보는 ▲전지훈련 메카 탄생 예고 ▲스포츠 관광 어디까지 왔나 ▲허규연 KBO 총재 인터뷰 등 총 3회의 관련 기사를 통해 전남의 스포츠 단지 건립 현황을 점검한다.

'따뜻한 땅끝 마을' 해남군은 내년 180억원을 들여 '해남스포츠파크' (이하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전남 스포츠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지훈련의

사업비 180억 투입 평활리에 조성 공식 경기 가능한 경기장 3개 KBO와 퓨처스 마무리캠프 협의 중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KBO와의 협약을 통해 퓨처스 리그 팀의 마무리 캠프로도 활용이 가능해 프로와 아마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최고의 경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대에 건설 중인 이 스포츠파크에는 공식경기가 가능한 야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할 수 있는 복합코트 각 1개씩 총 3개의 경기장이 들어서게 된다. 국비 43억원과 군비 137억원의 총 사업비 180억원 들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스포츠 시설로는 전남 최대 규모이다.

군은 최근 지자체 간 치열해지는 스포츠 마케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대규모의 스포츠단지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포츠파크 건립으로 해남군은 야구장이 1개에서 3개로, 축구장은 4개에서 6개로

각각 늘어나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평면에 한 곳 뿐인 해남 야구장을 이용하는 전지훈련의 연인원은 1년 평균 1300여명으로, 한 달간 체류의 경제효과는 약 3억1000여만원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스포츠파크가 들어서면 경제효과 15억여원으로 현재보다 무려 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남군 스포츠사업단 노봉진 주무관은 "광주-전남남구원의 '전지훈련이 전남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의하면 2023년 기준 도내 전지훈련 연인원 1일 1인당 경제효과를 9만5000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스포츠파크 설립 후엔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군은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자들이 해남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프로그램 '스포투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파크 인근에 국내 유명시찰인 대흥사를 비롯해 우항리공룡화석지·두륜산케이블카·우수영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과 고구마빵 만들기·갯벌체험·승마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오고 싶은 해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한다.

<2면으로 계속>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알립니다

2025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5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2024년 12월 5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유의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결봉투에 공모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5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국회서 '국회도서관 광주분관' 설립 토론회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 공동 개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도시 광주에 '국회도서관 광주분관'을 설립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30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의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도서관 광주 분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광주만의 민주·인권·평화, 문화·예술 등 호남 정체성이 반영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광주가 인공지능(AI) 도시인만큼 AI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지식 정보 플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라는 주제로 광주가 지역구인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군택·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노수(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저

장소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허브와 지식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역거점에 분관을 설치해 국가 지식정보 역량을 확충하고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들의 지역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시대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나선 노우진(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립도서관의 분관은 자료 보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연구조사 기능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며 "국회 광주도서관은 책, 전시, 공연 등을 함께 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기획 산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에 비해 많이 부족한 데다가 공공도서관의 41.2%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